



“There can be no keener revelation of a society’s soul than the way in which it treats its children.”
- Nelson Mandela -

“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보다 더 날카롭게 그 사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 넬슨 만델라 -



UNICEF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는 무엇인가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 사회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지방 정부의 시스템에서 실현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각 지자체는 단계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우선, 아동의 생활환경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후보로 등록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아동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개최된 유엔회의에서 최초로 발의되었고, 2000년 이탈리아에 위치한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여 전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3년 성북구가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성북구를 포함한 27개 지자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UNICEF,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원칙은 무엇인가요?



UNICEF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에 사는 아동들은...

아동친화도시의 모든 아동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 일에 의견도 맘껏 표현하지요.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멋진 활동가랍니다.
- 의료와 교육서비스를 누리는 것은 기본!
- 어딜가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습니다.
- 거리를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요.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어요.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서 삽니다.
- 문화행사나 사회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아요.
- 장애를 가진 아동도 똑같이 존중을 받습니다.



UNICEF
UNICEF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어떻게 인증받나요?

<p>Step 1 인증 신청</p>	<p>Step 2 자가평가지 작성</p>	<p>Step 3 심사</p>	<p>Step 4 인증 완료</p>
<p>지방자치단체장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p>	<p>해당 지자체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전달한 자가평가지를 작성하여 제출</p>	<p>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인정하는 평가위원회가 지자체 제출 자료를 심사</p>	<p>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해당 지자체를 Child Friendly City로 인증</p> <p>인증된 지자체는 3년 이내에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 해야하며, 평가위원회는 해당 지자체를 재평가 후 재인증 여부 결정</p>
			

* 참여 시/군/구 숫자는 제한이 없음

전 세계가 참여하는 CFC,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프랑스 약 260여개 도시가 인증, 프랑스 시장연합회와 협력하여 추진
- 스페인 유니세프스페인위원회가 노동사회부, 스페인지방자치연합 등 정부기관과 협력해 CFC사업을 시행
- 이탈리아 CFC사업을 처음 시작했으며, CFC 시장들이 시의회에서 정기적으로 아동관련 정책에 관하여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관련 프로그램을 모든 시민에게 설명
- 스위스 70여개의 도시가 아동친화평가를 실시하였으며, 19개 도시가 CFC인증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되는 우리나라를 만들고자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를 구성하오니, 각 단체장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일하는 유니세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권을 지켜주는 것은 유니세프의 가장 중요한 과업입니다.

이 세상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는 전 세계 155개 개발도상국에서 보건증진, 에이즈 예방과 퇴치, 식수와 위생환경 개선, 영양, 교육, 아동보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합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지구촌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는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이 고유의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아동권리 교육, 아동권리 지킴이학교 선정 프로그램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49(창성동17-1) (우)03043
전화 (02)724-8578 이메일 crc.3@unicef.or.kr

UNICEF,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APCFC)는
무엇인가요?

역할

- 전국의 시/군/구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지원합니다.
-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안전, 환경, 문화, 여가 활동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환영 받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적인 연대감을 조성합니다.
-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우수사례를 상호 교환합니다.
- 시민교육을 촉진하고, 아동이 자신들과 관련 있는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운영

- 전국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대합니다.
- 아동 권리 교육, 세계 아동 현황 보고 등 국제적 이슈 공유 및 아동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시스템을 통해 및 협력합니다.
- 우수사례 발표, 정보와 경험 교환, 전문가 강연 등을 통해 아동친화 정책이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5 제 11차 프랑스 아동친화도시 정기 컨퍼런스 © Roland Bourguet